

“세계최고 동박 생산을” 신동빈, 말레이 공장서 현장경영

(롯데 회장)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 스마트팩토리 연산 6만 해외진출 전략적 생산거점 활용 “입지적 장점 활용 경쟁력 높여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롯데 측이 18일 밝혔다.

지난달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긴 이후 연이은 신사업 경영 행보다. 이번 방문에는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 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한 5·6공장에서 2만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을 마친 동박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

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의 연간 생산 규모는 6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5·6공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롯데에너지머티

리얼즈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등 말레이시아를 해외진출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2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쓰인다.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제품

은 8μm(마이크로미터)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줄 것

을 당부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와 신규 고객 수주를 통해 지난해 2022년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 809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는 국내 대비 저렴한 전력비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일정해 동박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강우량이 풍부해 수력발전 기반으로 전력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해외 고객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현재 국내에 전북 익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에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간호학과 1000명 증원... “자연계 합격선 내려갈 수도”

전국 대학 간호학과 모집 80% 지방 지방권 수험생들에 변수 작용할 듯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0명 확대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국 대학 간호학과 모집인원 중 80% 이상을 지방권 대학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 수험생들에게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전망이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간호학과

모집 인원은 113개교 총 1만806명이다. 이 중 지방권 대학 89개교 모집 인원은 8882명으로 전체 82.2%에 달한다. 서울권은 12개교 939명, 경인권은 12개교 985명으로 지방권 모집 비율이 압도적이다.

현재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에서 간호학과의 입학 수능 점수는 대학 내 자연계 전체 학과에서 상위 10%대에 달한다.

지방 국공립대 기준으로도 자연계 전체 학과 중 간호학과는 최상위권에 속

한다. 안동대는 자연계 25개 학과 중 간호학과의 1위였고, ▲군산대 19개 중 1위 ▲강릉원주대 7개 중 1위 ▲창원대 22개 중 2위 ▲목포대 8개 중 2위 ▲한국교통대 16개 중 3위 ▲공주대 53개 중 6위에 해당한다.

서울권에서도 간호학과의 경우 서울대(일반전형)는 자연계 전체 37개 학과 중 5위, 연세대도 28개 학과 중 10위권에 위치한다.

이처럼 간호학과가 지역 내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 학과에 해당하는 가운

데, 정원이 증원되면서 서울·경인권 입시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특히 자연계 다른 학과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역시 ‘지역인재전형 30%’ 선발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000명 늘어난 정원 중 지역인재 입학 비율 또한 최소 30% 이상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권 중하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 관



간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계 입시에서 지역, 대학(증원) 배정 상황에 따라서 합격 점수에도 영향력 격차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

함양
함양도약! 함께여는 함양

함양 Tour

힐링과 체험, 삶의 재충전! 함양군으로 오세요!

-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산 #스카이리조트 #캠핑랜드 #모노레일
- #개평 한옥마을
#일두고택 #미스터션사인 촬영지
- #상림공원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 #천년의 숲 #산삼엑스포 #꽃무릇 #산삼주제관
- #지리산 가는 길(지리산 제일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오도재 #지안재 #지리산제일문
- #남계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499호 #정여창